

# 우리의 국풍을 두고

리 우 선

국풍!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 고유의 풍속이 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지향이나 요구가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지향이 되고 습결이 된것, 력사의 흐름속에 면면히 이어지며 다른 나라 인민과 구별되는 그 나라 인민 고유의것이 된 나라의 풍속을 가리켜 국풍이라고 한다. 하기에 국풍은 나라와 민족의 면모와 기질, 특징을 알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그 나라와 인민의 사상과 정신, 미래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징표로 되는것이다.

얼마전 출근길에서 있던 일이다.

그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걸음을 다우치고있었다. 이때 《분대장동지!—》하고 뒤에서 찾는 갈린듯 하면서도 청이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사의 목소리라고 하기에 목청이 너무 굵어 나는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40대는 뺏음직한 한 사나이가 손을 흔들며 나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혹시나 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옷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패이군 하는 그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있는 군사복무시절 분대의 막내이라 불리우던 김동무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우리 분대의 막내인 김동무가 아닌가?!...》

나는 뜻밖에 반가운 기분에 휩싸여 달려온 그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예, 옳습니다. 먼발치에서 보니 분대장동지의 모색과 신통히도 같아보여 이렇게 무작정 달려왔더니 정말 분대장동지가 옳구만요.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는 두서없이 무작정 나의 팔을 흔들었다.

《나야 보다싶이 이렇게 건강하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식도 없이 불쑥 평양에 올라왔나?...》

나는 이따금 보내오는 편지를 통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을 아는지라 그의 물음에 대답하고나서 평양행출장용무를 물었다.

《저는 학위론문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동생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뭐, 동생?!...》

군사복무시절 한달이 멀다 하게 오빠소식을 물어보고 집소식도 전해주며 오빠가 집걱정은 아예 말라던, 자기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을 배워주는 교원이 되겠다고 편지때마다 써보내군 하던 김동무의 녀동생이었다.

《그때 동무의 녀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그를 만나보고싶은 충동에 재차 물었다.

《저기에 있습니다.》

김동무는 한손으로 가리켜보였다. 그런데 그의 녀동생은 웬 삼륜차의 곁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김동무를 바라보았다. 김동무는 영문을 몰라하는 나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자기 녀동생은 자기가 말한대로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는것, 그런데 그의 중학교동창생이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정황에서 전우들을 구원하다가 그만 몸을 다쳐 특류영예군인이 되었다는것, 그래서 고향에 온 그와 결혼하고 사는지 몇년 잘된다는것, 지금은 당의 사랑속에 평양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올라왔다는것 등...

나는 저도 모르게 찌릿이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는 그의 녀동생앞으로 다가갔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생각나는것이 있다면 그의 녀동생과 그의 남편의 손을 뜨겁게 잡아준 기억만이 생각난다.

이들과 헤어진 후 기업소로 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에는 소학교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참된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는 그 바쁜 속에서도 특류영예군인인 남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을세라 여러가지 시중도 들어주고 또 그의 건강을 완치시키려고 여러가지 약초들을 구해들이며 이악하게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30여년세월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회안청년탄광 부원 김춘화녀성이며 영예군인남편의 건강과 생활을 돌보는 속에서도 시어머니 공대를 잘하여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청진시의 리옥경동무, 친아들딸, 친손자손녀가 되어 명절과 휴식일은 물론 어느날에도 전쟁로병들을 찾아가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발휘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는 새 세대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사심없는 헌신으로 내 조국을 받들어가는 유명무명의 사람들,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영예군인들의 길동무가 되고 자식없는 로인들의 친아들딸

이 되고 친손자손녀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나라의 기풍, 그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나라의 국풍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그 어느 나라와 인민도 지니지 못한 주체조선의 고유한 국풍, 그것이 바로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국풍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과 우리 인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하여 조국땅을 멀리 떠나 외국방문의 길에 계신 지난 2월의 열흘낮, 열흘밤, 이 나날은 우리의 훌륭한 국풍이 최상의 경지에서 또다시 높이 발휘된 나날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 원수님 가신 그곳의 날씨는 어떠할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국방문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은 이런 그리움으로 불타올랐고 그 불길은 일터마다를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끊게 하였다.

송남청년탄광 청년갱의 탄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국방문소식을 전해 듣고 즉석에서 갱으로 걸음을 돌리었고 나 어린 처녀방직공은 먼길 떠난 아버지에게 사랑을 아뢰이고 싶어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정량의 두배반에 달하는 직기를 말아안고 내달려 남먼저 년간계획완수자가 되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은 대발파의 동음을 련속 울려나가면서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할 공사량을 단 며칠동안에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실적이 뛰어오르고 과학자, 연구사들은 열흘낮, 열흘밤을 불꽃튀는 과학탐구로 이어왔다.

정녕 령도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우리 인민이 엮고엮은 위훈의 꽃다발은 천이었던가 만이었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그때처럼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식이 실린 당보를 펼쳐들고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던 우리 인민이 마침내 그이께서 돌아오시었다는 소식에 접하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다.

만세를 부른다면 하늘높이 들썩하게 만세를 웨치고싶고 춤을 춘다면 땅이 쿵쿵 울리도록 춤추고싶은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렇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흐르는 그리움과 혈연의 정,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일심단결의 혈맥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인것이다.

이 위대하고 훌륭한 국풍이 있어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세상사람들모두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